

I . 문제제기

청소년 비행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된 이래,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거나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양의 연구에 비해 청소년 비행 감소를 위한 다양한 예방책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그나마 청소년 비행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모색한 대안이라는 것도 연구마다 역시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대안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현재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대안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되는 대안은 어떤 면에서는 같을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감안한다 해도,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예방만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과 청소년 비행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주장만이 반복되고, 구체적인 대안, 이를 실천하는 방법과 실천에 따른 효과 검증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청소년 비행억제를 위한 방안 모색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론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등 다양하다. 보다 초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행예방 방안은 청소년 비행의 발생 원인을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지침을 마련하는 방법일 것이다.

청소년 비행 관련 문헌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되는 시각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청소년기 발달단계의 특성, 도덕성 발달상 결함이나 공격적 또는 충동적 성향, 좌절감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청소년 비행이 발생 또는 통제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개인의 성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서 한번 형성되면 쉽게 고쳐질 수 없고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비행행위자의

성향이나 특성을 파악한다. 두 번째는 가족간의 갈등, 학교로부터의 소외나 사회 유해환경의 유인 요소 및 비행기회의 노출로부터 가치관의 혼란, 물질만능주의 및 이기주의의 팽배 등 사회환경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이 발생한다는 시각이다. 여기서는 비행행위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상황의 여건에 따라 순간적이고, 우연하게 비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 번째는 개인의 성향과 비행 발생의 상황적 측면의 영향에 의해 비행이 발생된다고 보는 시각으로, 이는 앞서 두 시각이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비행행위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공격성이나 충동성, 문제해결능력이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대체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제해결능력이 낮다거나 공격성 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비행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개인적 성향이 쉽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이어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한다해도, 개개인마다 속해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속성에 의해 비행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입장은 앞서 두 시각에서 비행 발생의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세 번째 입장에서는 비행이 발생하기까지의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여 비행발생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개체와 환경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된다는 세 번째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청소년 비행억제 방안을 마련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비행억제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수를 탐색하고자 한다. 청소년 비행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비행억제 또는 통제요인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우리 문화권에서 청소년 비행억제를 다룬 연구는 극히 적고, 더더욱 개인과 환경적 측면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비행에 관련된 복합적 요인을 다룬 연구(이동원, 1997; 민수홍, 1998; 황성숙, 1998)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연구는 비행 억제 또는 통제와 관련된 단일 요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제도적 요인간의 관계를 총체

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변수를 한 두 문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억제에 대한 변수의 영향력은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부모자녀관계 요인, 학교관련 요인 등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비행 청소년이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행억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결과는 청소년비행 예방 뿐 아니라 또한 현행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 관련문헌고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가 비행이나 사회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기 쉬운 때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현대 사회와 같이 사회윤리의식이 실종되어가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는 청소년 적응을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의 억제 또는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개체의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의 산물이다. 개체는 자신을 둘러싼 미시 환경과 거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똑같은 환경에 처한다해도 개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 비행 역시 개인적 성향과 상황적인 측면의 영향에 의해 발생된다는 시각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비행 억제에 관한 선행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와 비행 억제에 대한 일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적 변수와 환경적 변수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과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은 사회학에서 주된 관심을 갖고 접근해 온 바, 비행과 환경적 요인과의 분석에 치중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미흡한 편이다. 이에 반해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시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격성이나 도덕성 발달단계, 충동성과 문제해결능력 등 개인적 특성과 비행과의 관계가 유의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를 간략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격성과 비행

관련 문헌에 의하면, 공격성은 비행과 정적 상관을 보여 공격성이 높은 경우, 폭력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보편적이다. 원호택(1991)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비행 청소년은 일반 학생에 비해 공격적이라고 보고했다. 비행 청소년은 강인하고, 냉담하며, 동정심이 부족하고, 충동통제능력은 낮은 반면, 실패를 추구하는 동기가 높다. 이에 대해 Megargee(1966/1971)는 공격성과 비행간의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통제의 정도에 따라 보이는 비행 양상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과소통제형은 행동 억제에 힘이 약하고 충동성이 강한 사람으로 이런 성격이 반사회적 경향성과 결부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될 수 있고, 과잉통제형은 지나치게 자제력이 강한 사람으로, 평소에는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만약 자신의 억제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촉발 자극이 주어지면 매우 심한 극단적인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경미한 폭력범죄자들보다는 극단적인 폭력범죄자들에게서 이러한 과잉통제적 성격이 더 많이 관찰됨을 보고하였다(원호택, 이민규, 1990에서 재인용).

2) 문제해결능력과 비행

비행과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Campbell et al, 1983; 원호택, 1991; 최재경, 1995)의 결과에 의하면 두 변수간의 관계는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며,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비행을 하기 쉽다.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은 충동적 행동을 금지하거나 자기통제를 하는 능력이 없고 문제해결 의지보다 자기규제

적인 사고 없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치움으로써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비행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더 통제불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며, 이로 인해 문제상황 자체보다 무력감이나 우울감, 분노등 정서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더 크게 안게 되며 (장희주, 1991),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분을 가라앉히거나 바꾸기 위한 수단을 택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한다.

고등학생과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최재경, 1995)에서도 소년원생이 고등학생보다 사회적 문제해결의 유능성과 대인협상전략이 낮아, 소년원생은 동료와의 문제 상황에 대해 충동적이고 폭력, 위협에 의존해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문제해결의 유능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비행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3) 도덕성 발달과 비행

비행과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다양하지 못하며, 특히 도덕적 행동과 도덕적 사고와의 관계를 통제한, 도덕적 사고와 비행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더더욱 미흡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행과 도덕성 발달 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결과와 도덕적 행동과 사고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결과를 통해, 비행과 도덕성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비행을 도덕적 행동과 상치되는 개념으로 볼 때, 도덕적 행동과 사고와의 관계를 통해 비행과 도덕적 사고나 도덕성 발달단계와의 관계를 추론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행동과 사고와의 관계는 일관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도덕적 행동이 도덕적 합리성과 무관하며, 도덕적 판단력과 어떤 특정한 도덕적 사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정서적 반응, 행위의 경향성 등은 도덕적 행동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그 개인이 처한 상황적 변인과 개인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이다(이설이, 1984; 장관수, 1989).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관수(1989)의 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행동의 선택은 도덕적 합리성이나 열성에 의해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못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선택하고, 지능, 학업성적과 어머니의 학력 역시 도덕적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훈(1994)은 청소년이 도덕 행동을 가장 많이 억제하는 이유가 타인 의식 때문이고, 어느 연령층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 억제의 주된 이유 역시 결국 남을 의식해서 비행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받는다.

한편, 두 번째는 비록 도덕적 행위의 많은 부분이 여러 상황적 요인과 개인 특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래도 여러 행위를 공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일반적 요인이 존재하며, 그 중 하나가 도덕적 사고, 판단 등 인지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Nelson, Smith, Dodd(199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덕성 발달단계와 비행 청소년과의 관계를 다룬 15개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비행 청소년의 도덕적 추론이 미숙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비행을 하지 않는 자는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 중 주로 인습적 수준에 머물고, 비행 청소년은 전인습적 수준에 기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간의 도덕성 발달 수준상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4) 자아개념과 비행

비행과 연관된 개인 특성 중에서 경시할 수 없는 변수는 자아개념이나 자존감, 수치심 또는 자아상 등이다. 이러한 변수와 비행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윤진 외, 1989; 장희주, 1997; Levy, 1991; Sullenberger, & Vyas, 1991)에 의하면, 두 변수간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부정적 자아상과 비행과의 관계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 등(1989)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자기 중심성이 더 높으며, 남녀 청소년의 비행은 충동통제능력, 연령, 우울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전수웅(1995)은 보호소년 300명과 일반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아분화수준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성적 자아보다 정서적 자아가 지배적이며,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하고, 자신의 갈등이나 문제들을 가족에 투사시키는 등 미성숙한 자아상을 보일 때, 잠재적 비행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자존심의 손상 역시 청소년 비행, 특히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수치심과 폭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Scheff & Retzinger, 1991). 수치심은 자신의 자아나 인상이 다른 사람에 의해 크게 손상되거나 혹은 손상이 된다고 정의될 때 느끼는 감정으로, 심한 수치심을 받게 되면 격분에 의해 폭력을 동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상대방의 모욕이 즉각적인 폭력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 의해 그 상황이 폭력적이라고 해석되고, 정의될 때 폭력적이 되며, 자신의 자아가 손상받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자아를 회복하고, 그 상황을 종결시키려는 목적에서 폭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다(이성식, 1996에서 재인용).

장희주(1997)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가 약한 사람이 비행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비행또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비행에 가담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나름대로 자신의 자아를 지지해 줄 타인을 찾게 됨에 따라 비행 집단을 통한 유대감과 소속감이 비행 가치를 쉽게 받아들이게 하여 행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1998) 역시 장희주와 유사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행이나 범죄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개념을 위협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방어가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부모나 친구로부터의 거부, 유능감의 상실, 학교에서의 실패 등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없다면, 규범에 동조하려는 동기를 상실하게 되며, 그 대신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으로 자아개념의 향상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결과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5) 법 처벌에 대한 인지도와 비행

비행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었던 것은 법 처벌에 대한 인지도이다. 억제 이론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범죄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받게 되는 손해가 이익보다 크면 클수록 범죄의 발생율은 더 낮아진다고 본다. 또한,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범죄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사람의 법규 위반을 감소시킨다고 보며, 이를 법 처벌에 의한 일반적 억제라고 한다(최인섭·이성식, 1996). 특히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높을수록 범죄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본다.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한, 일반적 억제를 다룬 미시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 처벌에 대한 지각된 확실성이 범죄 행위의 증가 및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억제 효과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Silberman, 1976; Erickson et al. 1977; Jensen et al. 1978; 최인섭·이성식, 1994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 행위와 법 처벌에 대한 인지도와의 관계는 허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범죄 행위를 할 경우 의미있는 타자로부터 받는 비난과 같은 비공식적 제재 변수들이 통제될 때, 법 처벌의 인지된 위협이라는 변수가 가지는 억제 효과의 유의미성은 사라지며, 오히려 비

공식적 제재변수들이 범죄 행위에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기존의 일반적 억제 이론의 명제에 반론을 제기하는 한편, 비공식적 통제를 강조하는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지지하였다(박창남, 1995). 서울의 남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박창남(1995)의 연구에 의하면, 법 처벌의 인지된 위협은 비행억제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법 처벌로 인한 친구관계의 손실이 비행억제에 미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비행억제에 보다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법 처벌의 위협보다 행위 자체에 대한 규범적 판단, 즉 도덕적 신념임을 제시하여 억제 이론의 한계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한편, 최인섭·이성식(1994)의 연구에서는 재소자나 소년원생의 경우, 법 처벌에 대한 인지도가 비행 억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규범적 측면의 영향력이 유의있는 것으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비행억제에 유의한 변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 충동성과 비행

비행과 밀접한 상관을 보이는 개인적 변수 중 최근 들어 선행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충동성이다. 개인의 충동성과 비행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 의하면,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충동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행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보다 충동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충동성을 인지양식의 한 분류로서, 사려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보고, 특히, Kagan과 Kagan(1970)은 사려성-충동성이란 차원을 반응이 불확실한 문제해결 상황에서 느리거나 빠른 반응시간을 보여줄 일관성 있는 경향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즉, 여러 대안 중에서 느리면서 정확한 반응 경향을 사려성 깊다고 보고, 빨리 반응하되, 불확실한 반응 경향을 충동성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Messer(1979)는 충동적인 인지양식

을 보인 정서장애아가 사려적인 정서장애아보다 더 공격적이며, 놀이에 있어서도 더 거칠고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이민중, 1998), 충동성이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행동주의자들은 충동적인 사람은 자기통제력이 결핍되어 있고, 특히, 충동적인 아동은 즉각적으로 선택을 하면서도 덜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만족을 지연시킬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미경(1995)은 법의 처벌 경험이 없는 일반 고교생과 보호관찰집단을 대상으로 성격특질의 충동성과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인지적 충동성과 행동적 충동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행동적 충동성이 비행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연령,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가족구조, 처벌의 종류, 비행의 종류, 처벌횟수 등이 비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경(1997)은 충동성을 단순성, 사태의 감정적 처리, 즉흥성, 흥분성, 폭발성, 잘나성, 자유분방성 등을 말하며 판단이나 행동이 기분에 좌우되며 침착성과 자제력이 결여된 상태로 보았다. 이러한 충동성은 정신집중이 흐트러지는 정도, 높은 활동수준, 욕구만족 지연의 불가능, 지속적이지 못한 대인관계, 반사회적 행동 등으로 표출되며,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비슷한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보다 심사숙고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조은경은 교도소에 수감된 499명의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물범죄인 절도범죄자보다 강력범죄자의 충동성이 높고, 강력범 중에서도 살인범에 비해서 폭행범과 강간범의 충동성이 더 높으며, 조기비행자일수록 충동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모휘(Moffitt, 1993)는 충동성이 직·간접적으로 장기적인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어린 나이에 비행을 시작한 조발성 비행자들은 부모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애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을 일찍 습득

하고 충동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사한 환경 속의 아이들끼리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비행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만성이 되어 쉽게 중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후발성 비행자들은 사춘기에 일시적인 부모와의 마찰이나 가정 문제로 인해 반항적 행동을 하거나 비행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조발성 비행자에 비해 교정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비행은 사춘기나 청년기가 지나면 중단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윤영(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행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통제가 잘 안 되고, 적대감이나 분노를 느끼는 정도가 높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에 소극적이고, 협동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윤리나 도덕적 의무에 대해 둔감하고 무신경하며 공격적인 경향인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종(1998)은 목적을 의식하지 않고 사고나 행동이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어디에 속박되거나 제약을 받기를 싫어하며 자제력이 약해 기분대로 하고싶은 대로 행동하는 인성특성이 비행충동성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생의 비행충동성이 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충동성이 크다고 제시하였다.

7) 자아통제와 비행

충동성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아통제성이 있다. 이 용어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 갓프레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자아통제이론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모든 범죄가 무계획적으로 상황적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특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어떠한 성향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개인의 특성이 곧 자아통제력이라고 본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든 간에 상관없이 범죄적 행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발적이고 우연한 범죄기회와 가능성에 놓여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자아통제력의 개인 차는 바로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행위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러한 순간적인 쾌락을 지연 또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성식·최인섭, 1994; 이성식, 1997). 또한, 그 성향은 지속적이어서 범죄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행해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자아통제력을 순간만족과 충동을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모험을 좋아하고 재미와 스릴을 추구하는지, 분별력과 조심성이 없으며 근시안적인지, 정신적인 일보다는 육체적인 일을 선호하는지, 인내력이 없고 쉽게 화를 내는지 등의 개인의 성향 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성식, 1997).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기중심적 성향이 많고, 즉각적이며 간단하며 쉬운 욕구를 충족하려 하고, 장기적인 이익과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며, 때로는 위험하고 흥분되는 행위를 선호하고 지식 습득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다. 물론 낮은 자기통제력 그 자체만이 범죄 발생을 이끄는 주요 결정요인은 아니며, 범죄기회 역시 범죄로 이끄는 중요한 상황으로 본다. 반면,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상관없이 범죄 행위를 피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Gramsick등(1993)은 자아통제를 제외한 범죄 기회 그 자체만으로도 비행을 유발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아통제력 변수의 비행발생에 대한 설명력에 이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범죄와 유사행위를 범하기 쉬우나,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도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아통제력이 높은 사람이 범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개연성의 문제로, 범죄와 유사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이나 범죄기회가 아닌 연령, 성별, 부모의 훈육이나 훈련 부족이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즉, 자아통제성 그 자체의 영향력이라기 보다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적절한 훈육을 받지 못한 결과, 자아통제력이 개발되지 못하고, 이로 인한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면으로도 설명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성식(1995)은 자아통제를 단순히 충동의 억제라는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보다 포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자아통제란 비행충동의 자제 뿐 아니라 비행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염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등 자아통제에 대한 시각이나 설명력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자아통제에 대한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를 다룬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비행과의 관련성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섭 · 이성식(1994)의 연구에 의하면, 재소자의 경우 비행억제와 자아통제와 무관한데 반해, 소년원생의 경우 자아통제는 비행 억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공식적 집단과의 유대 또는 손실에 대한 우려 역시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식(1997)은 남녀 고등학교 2학년생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아통제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범죄 기회에 덜 노출되고 범죄 시 그에 따르는 처벌과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 있게 되는 손실을 더욱 의식 염려하게 되며 범죄 상황에 대해 느끼는 스릴과 쾌락도에 있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수홍(1998)은 비행에 대한 개인적 변수와 인적, 물적 가정환경변수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재산범죄에는 자아통제력과 법이나 사회규칙에 대한 옳은 정도 또는 지켜야 하는가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아들 구타 역시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고, 폭력범죄는 결손가정, 자녀에 내재화된 부모의 감독, 폭력에 대한 난폭한 가치, 자아통제력과 법이나 사회규칙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다중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자신의 특성이 추가됨으로써 청소년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범죄가 아닌 지위비행의 경우는

청소년 자신의 특성 변수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청소년비행의 설명력이 보다 더 많이 증가하여, 결국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은 범죄를 비롯하여 광의의 비행까지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2. 환경적 요인과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초기 사회학적 입장에서 중시했던 사회구조적인 환경을 포함하여 사회통제이론에서 제시하는 미시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 가운데 주로 가족과 학교환경, 또래관계 등 심리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환경과 비행

비행 연구에서 가족환경은 대체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손여부 등 구조적 측면과 부모자녀간의 관계 또는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의 기능적 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더욱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의 기능 중에서도 직접 통제는 훈육, 처벌 및 감독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는 한편, 간접 통제는 부모와 자녀간의 감정적 친밀성과 의사소통 등을 의미한다.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 감독 소홀 등은 비행 뿐 아니라, 초기의 반사회적 또래와의 접촉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반사회적 또래와의 접촉에 대한 설명력이 낮다고 밝힘으로써(Dishion & Loeber, 1991), 가족의 기능적 요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관련 연구(Patterson & Stuth-Loeber, 1984; Patterson, 1986; Patterson 등, 1989; Wilson & Howell, 1995; 이성식, 1995; 권윤아, 1997; 박정민, 1998; 최재경, 1995)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의 부모는 일반 청소년의 부모에 비

해 적대적,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여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담하며, 어떤 규칙을 위반했을 때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거나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청소년 비행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Wilson & Howell(1995)은 개인적 특성, 가족과 학교 영향, 또래집단의 영향, 이웃과 지역 사회의 영향에서 모두 비행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가족환경적 요인을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부모의 감독, 부모의 훈육 실제, 정서적 애착 또는 부모의 통제, 부모자녀간의 애착, 부모자녀간 관여는 비행과 관계 있는 중요 변수라는 것을 밝혔다. 부모자녀간 애착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Austin, 1978; Dantesman & Scarpitti, 1975)가 있는가 하면, 애착이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비행 가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Kron & Massey, 1980; Canter, 198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역시 제시되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등학생과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최재경(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유형간 분석을 하여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재산,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온정적이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정영숙(1994)의 연구결과는 부모자녀관계의 또 다른 하위영역은 비행을 억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영숙은 고통을 참아내고 표적행동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 즉각적으로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적절한 시기까지 그 만족을 지연하는 것을 자기통제력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변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인식하고 내재화된 경우이며, 물질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은 방해요인을 제어하는 힘이 약하다고 보고했다. 어머니에게 물질적 이익이나 심리적 이익이 생길 때, 아동은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오래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 특성 중 부모에 대한 사랑의 내면화, 부모 입장에 대한 이해, 부모의 자녀 사랑에 대한 인지는 자아통제력을 유지시켜서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와 비행

일반적으로 비행 또래집단과 자주 어울리게 되면, 비행가치에 내면화되거나 동조적 성향을 보여 비행에 가담하기 쉽다고 한다. 특히,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나름대로 자신의 자아를 지지해 줄 타인을 찾게 되고, 비행 집단을 통한 유대감과 소속감이 비행 가치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 행위화시킨다고 한다(장희주, 1997).

Wilson & Howell(1995)은 가족환경적 요인 때문에 비행을 할 뿐만 아니라, 학업수행이 낮은 청소년, 학교규범을 어기는 청소년 역시 비행을 한다고 하였다. Lau & Leung(1992)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학교와의 관계가 나쁜 경우 비행율이 높다고 보고했다.

김준호(1990) 역시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학교 교사의 공부 압력이라고 지적하였고, 교사에 대한 불신과 반항도 비행 초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권정혜, 이봉건과 김수현(1992)은 중학교 1학년생의 습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부모관련 변수보다 또래에 의한 수용 또는 배척여부가 비행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은영(1993)의 연구결과에서도 또래로부터 배척받는 청소년집단과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소년집단은 비행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또래집단의 성격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terson(1986)과 Patterson등(1989)은 또래 배척의 효과를 장기종단적인 관점에서 인과 모델을 제시했다. 아동 초기에는 부모의 비효율적인 양육방식과 가족의 환경적 맥락이 아동의品行장애를 유발하고, 아동 중

기에는 초기의 품행장애가 학업성적 부진과 또래 배척으로 진전이 되어 아동 후기나 청소년기에 이르면 일탈또래집단에 가입하여 청소년의 만성적인 비행에 가입하게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부모나 또래관계, 학업수행 등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지만,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각 변수의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청소년 비행 원인 및 억제 관련 경험적 연구의 고찰

경험적 연구에서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부모나 교사, 또래나 부모, 법 의식과 부모 등 한, 두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여기서는 보다 복합적인 설계 하에 시도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부분은 사회통제이론이나 자아통제이론의 시각에서 진행되거나 억제이론과 사회유대이론과의 비교를 한 연구결과와 관계가 있다.

사회통제이론에서는 가정과 학교를 인습집단으로 보고 이는 개인의 범법행위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사회유대의 주요 근원이며, 특히 개인의 부모와의 애착, 학교에의 애착 혹은 학교공부예의 투자, 관여 및 참여의 여부는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으로 강조되고 있다(이성식, 1994). 이성식(1994)은 남자고등학생 2,75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관여를 활동에 대한 개인의 투자로 보고 학교 공부예의 관여를 다루고, 참여는 인습사회에 시간적으로 얼마나 투자하는가의 정도로 특히 성적을 다룬 반면, 친구와의 애착은 경험적 연구에서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비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많이 보고됨에 따라, 자신의 연구에서 친구와의 애착을 제외시켰다. 학교와 교사와의 애착은 학교와 관련된 관여로 보고, 신념은 인습사회의 법 혹은 사회규범을 받아들이는 정도로서 법 위반에 대한 태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공부예의 관여, 비행친구와의 접촉, 법 위반의 정의는 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가정 여부, 거주지역의 범죄 정도 역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식의 또 다른 연구(1995)의 결과에 의하면, 가족 수입이나 결혼 가정은 경비행과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비행의 경우 사회적 유대의 요인, 즉, 부모, 친구와의 애착, 학교공부에의 관여의 영향력이 크고, 정적 상관을 보이며, 친구나 부모의 반응은 비행에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규 위반에 대한 태도를 포함할 경우, 법규 위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비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비행의 경우, 사회유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비행시에 갖게 되는 친구나 부모의 반응, 법규 위반에 대한 태도가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복선(1997)은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서울의 강남, 강북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부모나 친구, 이웃관계의 규준, 통제 및 지지 정도와 청소년의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탈행동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의 규준, 부모의 점검, 부모의 통제와 친구의 통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른 준거집단보다도 부모와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일탈행동 중에서도 경미한 문제행동은 부모의 점검과 친구의 통제가 영향을 미치고, 절도는 친구의 규준과 친구의 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중에서도 가출에 초점을 맞춘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권윤아(1997)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 역시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 변인의 상호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격이 낮고, 친구의 비행 정도가 높고, 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경조성이 높을수록, 가족이 역기능일수록 가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란(1996)은 중학생 563명을 대상으로 비행충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비행충동을 더 많이 느끼며,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가족환경에 대해 타 연구에

비행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고, 무관심하거나 유대감이 부족하며, 부부 불화가 심하며,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다고 지각할수록 비행충동이 높고, 주거환경 및 경제적으로 불만족스럽고, 신체적, 지적 열등감이 많으며, 불량교우가 많을수록 비행 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총수입이 많고, 용돈이 많으며, 인쇄매체와 영상매체에 대한 지출이 많고, 접촉하는 시간이 길수록 비행충동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 및 비행 충동은 성별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래관계,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관계, 영상매체에의 노출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은경(1996)은 청소년비행과 권력작용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성별에 따른 비행 분석에 많은 관심을 경주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은 아들보다 딸에 대해 더 강한 감독을 행하고, 고용 계급에서는 소년보다 소녀가 부모의 감독을 더 많이 받고, 더 강압적인 훈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고용 계급에서는 부모의 감독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의 비행가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의 비행가담에는 어머니의 감독과 아버지와의 애착, 부모의 강압적 양육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여자 청소년의 비행가담에는 어머니의 감독 소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애착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여학생들은 비행에 덜 허용적인데, 이는 적발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남자들은 제재 위협에 대한 인지가 낮기 때문에 비행억제력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 퍼져 있는 남녀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와 관행의 한 단면으로, 남자들의 비행은 한 때 있을 수 있는 일로 간주되는 반면, 여학생들에 대해서는 가벼운 지위비행 조차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한 통제의 대상이 되며, 일탈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로 인한 낙인도 남자보다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학생의 경우 비행에의

가담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은경의 연구결과에 대해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비행허용도가 높고, 모험심이 강하고 부모로부터 처벌을 별로 느끼지 않는 남성적인 성격을 지닌 고용계급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여학생의 경우는 비행허용도가 높고, 어머니의 감독이 많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니며, 모험적일수록, 비행에 억제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민수홍(1998)은 비행에 대한 개인적 변수와 인적, 물적 가정환경변수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재산범죄에는 자아통제력과 법이나 사회규칙에 대한 옳은 정도 또는 지켜야 하는가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아들 구타 역시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폭력범죄는 결혼 가정, 자녀에 내재화된 부모의 감독, 폭력에 대한 난폭한 가치, 자아통제력과 법이나 사회규칙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다중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자신의 특성이 추가됨으로써 청소년범죄 뿐 아니라 청소년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결국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은 범죄를 비롯하여 광의의 비행까지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며, 부모가 자녀를 외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보다 부모의 존재를 자녀 심리 속에 심어주는 것이 범죄나 비행 예방에 중요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청소년비행 원인 및 억제에 대한 관련 문헌을 고찰한 결과, 충동성이나 법 의식, 성별 등 개인적 요인과 가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 또래관계 및 학업성적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에 의해 비행이 유발 또는 비행이 억제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부모자녀관계 요인, 또래관계와 청소년비행 억제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개인적 특성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관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비행억제에 대한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5-1 :

비행억제 하위영역에 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5-2 :

학년별로 비행억제 하위영역에 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

1) 개인적 특성

비행과 관련 있는 개인적 특성 변수는 앞서 관련 문헌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행억제와 관계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검증되지 못한 변수와 최근 비행에 관한 이론에서 논의거리가 되고 있는 변수를 선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법의 공정성 및 법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의식 등 청소년의 법 의식과 충동성(또는 자기통제성) 및 소심함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아통제이론과 억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된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변수이다. 법의 공정성과 법 처벌의 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5문항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각 설문 중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의 설문내용이 있으므로, 같은 방향으로 다시 점수를 주어,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처벌의 확실성을 강하게 인지하는 것이며, 법의 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비행상황에 대해 유발 또는 통제 기능을 하는 충동성 또는 자기통제 관련 설문과 비행 행위로의 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소심함에 관한 설문 역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미경(1995), 이성식(1995, 1996)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 일부를 추출하고, 연구자가 문항을 제작하여 총 15문항을 척도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 또는 소심한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두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한 총 15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직교회전 요인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도 2개 요인이 추출되어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 추출된 2개의 요인은 총 변량의 33.9%를 설명한다. 첫째 요인에는 10문항이 묶였는데, 충동성으로 명명하고, 둘째 요인에는 5문항이 묶였으며 소심함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71로서, 내적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표 III-1> 개인적 특성에 관한 요인분석결과

변 수	요인 1	요인 2
s4	.681	
s2	.633	
s3	.614	
s6	.602	
s1	.551	
s5	.465	
s8	.434	
s10	.419	
s9	.399	
s7	.389	
s12		.686
s13		.665
s14		.650
s15		.609
s11		.549
고유값	3.07	2.02

2) 부모자녀관계

본 연구에서는 가족환경 요인 가운데 부모자녀관계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국한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자녀관계는 훈육이나 의사소통, 애착, 양육태도나 가치관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한, 두 문항에 의존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 훈육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영숙(1994), 이동원(1997), 이성식(1996), 진복선(1997)등 선행 연구를 통해 비행을 억제 또는 유발하는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으로 나타난 부모자녀간 애착과 훈육, 또한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나 부양책임감에 관한 설문 16문항을 만들었다. 각 설문의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

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이며, 설문 내용 중 부정적 방향의 설문은 같은 방향으로 값을 교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은 것은 부모자녀관계가 온정적이라든가 또는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해 자녀가 깊이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잠재적으로 3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교회전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3개 요인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요인은 총 변량의 56.9%를 설명하며, 첫 번

<표 III-2>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변 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p5	.819		
p4	.799		
p1	.727		
p3	.726		
p6	.665		
p7	.637		
p2	.607		
p15		.816	
p16		.804	
p13		.602	
p12		.430	
p14		.423	
p8			.639
p10			.601
p9			.442
p11			.409
고유값	6.78	1.35	.99

제 요인에는 7문항이 구성되고, 부모 자녀간의 애착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5문항이 묶였으며,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로 명명하고, 세번째 요인은 4문항이 묶였으며, 부모의 훈육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7로서, 내적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3)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또래집단과 교사집단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준거집단이다. 선행 연구의 고찰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또래관계의 성격이나 또래집단에서의 애착, 교사에 대한 신뢰 등은 청소년 비행의 억제와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대한 5문항과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2문항을 만들었다. 각 설문의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이며, 점수가 높은 것은 또래관계가 좋고, 적응을 잘 하는 것이며, 교사와의 관계 역시 신뢰하고 친밀한 것을 의미한다.

4) 비행억제

비행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가족 갈등, 학교 부적응이나 사회 유해 환경의 유인 및 비행기회 노출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의 조건이 결합되어 발생된다고 볼 때, 비행유발요인의 값이 낮으면, 비행을 억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사회유대이론, 자기통제이론이나 억제 이론에서 언급된 요인과 도덕적 신념 등은 비행억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억제를 어떠한 비행유발 상황에 실제로 직면했던 경험이 있거나 비행유발 상황에 처한다고 가정할 때, 비행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마다 비행 충동을 억제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여기서는 억제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

를 중심으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박창남(1994), 이성식(1995,1996), 진복선(1997), 이동원(1997) 등의 연구에서 사용항 문항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 적합하게 변용 또는 제작하였다. 비행억제에 관한 설문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총 16문항이다.

비행억제의 하위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직교회전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3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65.6%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문항의 내용이 모호한 한 문항을 제외하고 총 15문항에 대해 최종 분석을 하였다.

<표 III-3> 비행억제에 관한 요인분석결과

변 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r9	.826		
r13	.747		
r7	.683		
r8	.652		
r10	.571		
r2		.758	
r5		.744	
r4		.729	
r3		.717	
r6		.632	
r14		.403	
r16		.332	
r15			.801
r12			.763
r11			.684
고유치	8.19	1.23	1.09

첫번째 요인에는 5문항이 묶였으며, 문항의 성격상, 피해인식으로 인한 억제라고 명명하고, 두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준거집단과의 유대 상실로 인한 억제로 명명하였다. 세번째 요인은 3문항으로, 도덕적 규범으로 인한 억제라고 명명하였다.

이 척도에 대한 Cronbach α 는 .94로서, 내적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비행청소년 집단이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관한 조사대상은 주로 중 · 고등학생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비행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다는 점에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생으로 하였다.

가정환경의 분포를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 지역을 고르게 선정하여 중학교 6개교와 초등학교 6개교를 유의표집했다. 설문조사는 1998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배포 · 수집 또는 우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수집된 자료 중 부실기재된 23부를 제외한 924부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사대상자는 중학교 2학년생 408명과 초등학교 4, 6학년생 511명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빈도분포를, 성별과 학업성적, 부모의 지위 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하였다.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한 개인적 특성과 부모자녀관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하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변수간의 상관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r 상관분석을 하였고,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하였다.

Ⅳ. 조사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총 924명이며, 이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 482명(52.2%), 여학생 442명(47.8%)이다. 학년 분포는 초등학교 4학년 25.6%, 6학년 30.2%, 중학교 2학년 44.4%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자신이 잘한다는 경우가 6.4%, 잘하는 편 18.9%, 중간 53.8%, 못하는 편 16.9%, 못한다 3.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족환경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이하가 2.3%, 중학교 졸업 7.4%, 고등학교 졸업 36.6%, 대학교 졸업이상인 53.7%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이하 3.7%, 중학교 졸업 10.5%, 고등학교 졸업 48.4%, 대학교 졸업이상인 37.4%로 나타났다. 대체로 어머니의 학력은 아버지의 학력보다 전반적으로 낮으며, 특히 대학교 졸업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경우보다 16.3%가 적다.

형제 수의 경우는 외동이 10.4%, 2명 69.9%, 3명이상 19.7%이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 및 직업별 분포를 살펴본 바, 전체 응답자 924명 중 39명은 응답하지 않았고, 응답한 885명 중 전업주부는 524명(59.2%)이고, 취업주부는 361명(40.8%)이다. 취업주부 361명의 직종별 분포는 전문직 71명 19.7%, 사무직은 61명 16.9%, 판매직 84명 23.3%, 서비스직 66명 18.3%, 생산직 40명 11.1%이며, 부업 주부는 20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 직업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19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별 분포를 조사한 바, 전체 응답자 924명 중 58명인 6.3%가 응답하지 않았다.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866명에 대한 직업별 분

포는 전문직 10.2%, 관리직 9.1%, 사무직 34.2%, 판매직 18.5%, 서비스직 7.6%, 생산직 15.6%, 농업 0.6%, 실직 1.3%이며, 직업을 모르는 경우도 3.0%에 이른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성별	남 여	52.2% 47.8%	형제수	외동이 2명 3명 이상	10.4% 69.9% 19.7%
학교 (학년)	초등학교4년 초등학교6년 중학교 2년	25.6% 30.2% 44.4%	학업성적	잘한다 잘하는 편 중간 못하는 편 못한다	6.4% 18.9% 53.8% 16.9% 3.1%
아버지 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2.3% 7.4% 36.6% 53.7%	어머니 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3.7% 10.5% 48.4% 37.4%
아버지 직업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업 실직 잘모름	10.2% 9.1% 34.2% 18.5% 7.6% 15.6% 0.6% 1.3% 3.0%	어머니 직업	취업주부 전업주부	40.8% 59.2%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부업 잘모름	19.7% 16.9% 23.3% 18.3% 11.1% 5.5% 5.3%

2.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1)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의 변수 중 충동성과 소심함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와 평균을 구했으며, 성별, 학년별, 학업성적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1) 충동성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는 즉각적 · 즉흥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의지와 다른 상황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하고 자아통제성향이 낮다.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충동적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문항에 68.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하기 싫은 행동은 죽어도 못한다는 경우는 35.3%, 하고 싶은 말은 도저히 못참는다는 경우 34.4%, 생각 없이 행동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경우는 34.2%로 나타나, 즉각적, 즉흥적이며, 인내심이 없는 학생이 1/3이상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행동을 한 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경우 역시 21.9%로 나타나 10명 중 2명이 이런 경향을 보였다.

관련 변수에 따라 충동성을 T/F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자녀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경우, 충동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즉, 즉흥적,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자신의 욕구충족과 무관한 경우에 죽어도 못한다는 반응이 많이 나타났다.

충동성은 또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아무런 준비나 계획없이 행동하거나 생각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에 대한 사회화에서 여전히 순응적이고, 차분함 등 여자다움을 더 강조하고 있는 면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특성상 심리적,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해결해야 할 과업이 많은 민감한 시기로, 아동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시기보다 충동성이 높고, 자기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충동성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 관련변수에 따른 충동성

변수	충동성	평 균	T/F값
성별	남	29.99	3.99*
	여	29.19	
학년	초등학교 4학년생	28.94	1.95
	초등학교 6학년생	29.81	
	중학교 2학년생	29.86	
학업성적	잘 하는 편	28.23	16.26***
	중간	29.56	
	못 하는 편	31.55	
경제수준	잘 사는 편	29.01	5.00**
	중 간	29.52	
	못 사는 편	31.98	
어머니 학력	초/중학교	28.72	3.92*
	고등학교	30.14	
	대학교이상	29.17	

* p<.05

** p<.01

*** p<.001

충동성과 부모자녀관계 요인, 또래 및 교사관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체로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 그 가운데 또래관계에 적응을 못할수록($r=-.12$),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할수록($r=-.10$), 부모자녀간의 심리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할수록($r=-.19$), 충동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심함

자기 자신의 욕구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위의 시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은 10명 중 5명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여학생 또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더 소심하다.

소심함에 관한 문항은 장의존적 성향과 비주장적 자기표현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신이 행동을 할 때,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지 매우 신경쓰인다고 응답한 학생은 57.9%이고, 자기표현을 잘 못한다는 경우는 35.6%이다.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경우는 55.2%,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경우는 40.5%이고,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이나 불확실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경우는 31.8%로 나타났다.

소심한 정도를 관련 변수에 따라 T/F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나타난 변수는 성별,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이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경우, 더 소심하여 주변의 반응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기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마음의 상처를 잘 받았다. 이는 가족의 경제사정이 열악하거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경우, 가족환경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학생들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심함과 부모자녀관계 관련 변수와 또래관계, 교사관계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바, 전체적으로 소심함은 충동성보다 낮은 상관을 보인다. 부모와 심리적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r=-.12$), 또래관계에 적응을 잘 못하면($r=-.11$), 소심한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관련 변수에 따른 소심함 정도

변수	소심함	평 균	T/F값
성별	남	15.63	17.70***
	여	17.74	
학년	초등학교 4학년생	16.04	0.28
	초등학교 6학년생	16.09	
	중학교 2학년생	16.26	
학업성적	잘 하는 편	15.48	6.16**
	중간	16.25	
	못 하는 편	16.83	
경제수준	잘 사는 편	15.48	6.12**
	중 간	16.16	
	못 사는 편	17.76	
어머니 학력	초/중학교	16.97	4.59*
	고등학교	15.77	
	대학교이상	16.24	

* $p<.05$

** $p<.01$

*** $p<.001$

3) 법 의식

법에 대해 불공평하고,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응답자는 약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법 처벌이 엄격하고, 확실하게 적용된다고 지각하고 있다.

법 의식은 법에 대한 공정성과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학년이 낮을수록 처벌의 확실성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옳지 않고 부당한 법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2.6%이며, 중학생의 51.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에 비해 15% 정도가 법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학생은 35.3%이다. 남학생의 40.6%, 여학생의 34.4%가 법 적용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하였고,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10.7%에 불과하나, 6학년은 30.2%, 중학교 2학년은 53.1%에 이르러 학년이 올라갈수록 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다.

법대로 살아가다간 항상 손해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2.0%이다. 특히,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32.8%)은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16.6%) 보다 거의 2배 정도의 비율이 높아, 법 준수에 대한 의식이 낮았다.

경찰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등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41.8%이며, 초등학교 4학년의 19.1%, 6학년의 35.5%, 중학교 2학년의 경우 58.9%로 증가하였다.

한편,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경우,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경찰에 잡히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76.9%,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우 역시 80.5%로 나타나 10명 중 8명은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10명 중 2명은 법의 공권력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관련 변수에 따라 법 의식을 T/F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법의 공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년으로, 학년이 낮은 경우

법은 공평하다고 지각하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공평하게 인식하였다.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적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이 낮은 경우에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당위성에 대해 믿고, 학업성적이 좋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차이보다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은 처벌의 확실성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IV-4> 관련 변수에 따른 법 의식

변수 \ 법 의식		법 공정성		처벌의 확실성	
		평균	T/F값	평균	T/F값
성별	남	9.46	1.51	8.38	0.29
	여	9.26		8.45	
학년	초등학교 4학년생	10.65	70.44**	9.10	44.88***
	초등학교 6학년생	9.59		8.76	
	중학교 2학년생	8.47		7.79	
학업성적	잘 하는 편	9.45	0.42	8.50	8.93***
	중 간	9.36		8.56	
	못 하는 편	9.24		7.88	
경제수준	잘 사는 편	9.25	0.98	8.47	0.90
	중 간	9.42		8.42	
	못 사는 편	9.00		8.08	
어머니학력	초/중학교	9.54	1.83	8.62	1.24
	고등학교	9.19		8.45	
	대학교이상	9.49		8.31	

p < .01

*** p < .001

법의 공정성과 부모자녀관계 관련 변수, 또래관계, 교사관계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부모와 심리적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r=.25$),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r=.24$), 교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r=.22$), 부모의 훈육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거나($r=.16$), 또래관계가 좋으면($r=.13$), 법의 공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의 확실성은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r=.26$), 부모와 심리적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r=.24$), 교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r=.22$), 부모의 훈육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r=.21$), 처벌의 확실성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 2)

초·중학생은 전반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년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초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부모자녀관계를 온정적 관계로 지각하고,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가족부양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반면,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부모의 훈육에 대한 불만율이 높다.

비행과 관련된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은 크게 3영역으로 나뉜다. 각 영역별 주요 빈도분포결과와 주요 변수별로 T/F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애착

부모자녀간 애착 관련 문항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경우는 91.1%, 부모와 친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79.5%, 부모를 존중한다는 경우는 82.7%이며, 초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부모와의 친밀감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8.8%, 부모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16.6%이며, 부모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귀기울여주신다는 경우는 61.2%, 부모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귀기울여주시지 않는다는 경우는 13.7%로, 앞서 부모와의 정서적 밀착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학생 100명 가운데 14-16명 정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년별로 차이가 나서 부모와 대화가 잘 통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생 76.6%, 6학년생 63.7%인데 반해 중학교 2학년생은 44.3%이며,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기울여주신다는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70%, 6학년 64%, 중학생 54.1%이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대화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58.3%이지만, 중학생은 48.9%에 불과해 초등학교 4학년생 68.1%, 6학년생 64.1%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청소년기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중학교 시기는 더욱 또래관계가 의미있고, 이에 비해 초등학교 시기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응답자는 68.6%이며, 부모와 시간 보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경우는 10.5%이다. 이는 성별과 학년별로 차이가 나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좋다는 여학생은 72.8%, 남학생은 64.7%이며, 초등학교 4학년은 85.1%, 6학년은 73.7%, 중학생은 55.5%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와 함께 시간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청소년기일수록 부모와 함께 시간보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다.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T/F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학년이 낮고, 학업성적이 좋거나, 가정경제수준이 좋은 경우에 부모와의 심리적인 친밀도도 높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며, 대화도 잘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자녀의 경우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애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5> 관련 변수에 따른 부모자녀간 애착

변수	애착	평 균	T/F값
성별	남	28.12	3.52
	여	28.80	
학년	초등학교 4학년생	30.84	53.27***
	초등학교 6학년생	29.18	
	중학교 2학년생	26.57	
학업성적	잘 하는 편	30.18	36.94***
	중 간	28.61	
	못 하는 편	25.72	
경제수준	잘 사는 편	30.19	16.40***
	중 간	28.47	
	못 사는 편	25.12	
어머니 학력	초/중학교	28.23	6.24**
	고등학교	27.98	
	대학교이상	29.35	

* $p<.05$ ** $p<.01$ *** $p<.001$

2) 훈육

부모의 훈육관련 설문 역시 앞서 애착 영역과 유사하게 74.6-81.5%의 응답자가 부모의 훈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부모가 꾸짖을 때 불공평하다거나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41.2%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업성적이나 학년별로 차이가 나서, 초등학교 4학년 33.7%, 6학년 39.6%, 중학생 46.7%가 불공평하다고 지각했으며, 성적이 좋은 경우 31.0%, 성적이 나쁜 경우 53.5%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했

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자녀가 지각한 것으로,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10명 중 4명이 부모의 훈육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부모의 일관성 없는 훈육이나 규칙없는 훈육은 자녀의 반발심을 일으킬 뿐, 행동 교정에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의 훈육을 관련 변수에 따라 T/F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훈육은 성별, 학년, 학업성적,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보다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이 부모의 훈육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경우, 그 자녀들은 부모의 훈육에 대한 불만 정도가 높았는데, 학력이 낮은 어머니는 자녀양육상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표 IV-6> 관련 변수에 따른 부모의 훈육

변수	훈육	평 균	T/F값
성별	남	15.51	5.67*
	여	15.88	
학년	초등학교 4학년생	16.28	17.93***
	초등학교 6학년생	15.93	
	중학교 2학년생	15.18	
학업성적	잘 하는 편	21.61	21.99***
	중간	20.43	
	못 하는 편	19.26	
경제수준	잘 사는 편	15.83	1.34
	중 간	15.72	
	못 사는 편	15.22	
어머니 학력	초/중학교	15.54	3.13*
	고등학교	15.56	
	대학교이상	15.97	

* $p < .05$ ** $p < .01$ *** $p < .001$

3)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

부모가 자녀 기르는 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가치있게 여긴다고 지각하는 응답자는 79.8%, 자식을 위해 부모 자신의 생활을 희생한다는 경우 76.6%,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 같다는 경우 64.2%이다. 이러한 설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 볼 때,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각각의 문항에 따른 학년별 반응의 차이는 24-36%로 초등학교 4학년생은 중학생보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는 필요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모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며,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은 62.3%이며, 특히 여학생(58.6%)보다 남학생(65.7%)이, 성적이 나쁜 학생(55.8%)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74.4%)이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 75.4%, 6학년 68.0%, 중학생 51.4%가 가족부양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현실 인지보다 윤리적, 도덕적인 규범 측면에서 반응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중학생은 현실 지각으로, 가족부양에 대한 변화된 의식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로 보인다.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를 관련 변수에 따라 T/F검정한 결과에 의하면, 학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보다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도를 높게 지각하고,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관련 변수에 따른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

변 수	자식사랑 인지	평 균	T/F값
성별	남	20.51	0.02
	여	20.48	
학년	초등학교 4학년생	21.90	45.83**
	초등학교 6학년생	21.06	
	중학교 2학년생	19.32	
학업성적	잘 하는 편	16.20	22.82***
	중간	15.81	
	못 하는 편	14.70	
경제수준	잘 사는 편	21.25	5.53**
	중 간	20.49	
	못 사는 편	19.29	
어머니 학력	초/중학교	20.56	2.91
	고등학교	20.25	
	대학교이상	20.89	

* $p < .05$ ** $p < .01$ *** $p < .001$

4.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연구문제 3)

주위 사람이 비난해도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고 지각하는 응답자는 10명 중 6명이며, 주위 사람이 비난해도 믿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5명이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각각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3.6%이고, 자신을 좋아하는 친구가 많다는 경우는 34.3%이며, 학업성적이 좋거나 학년이

낮거나 경제수준이 좋은 경우에 이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설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자는 68.3%이며, 학업성적,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76.0%인 반면, 학업성적이 나쁜 경우는 55.8%이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빈도에 국한시켜 볼 때, 초등학교 4학년생은 47.0%인데 반해 중학생은 30.3%로 초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친구에 대한 신뢰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가 많다고 응답한 자는 68.4%인 반면, 친한 친구가 많지 않다는 경우가 10.3%, 학교에서 외톨이라는 응답자가 6.3%,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많지 않다는 비율이 14.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10명 중 1명꼴은 또래와의 친밀도를 느끼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등 또래관계상의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래관계에 관한 관련변수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또래관계는 학업성적, 학년,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래관계 적응은 학업성적이 좋거나 가정경제수준이 좋거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거나 초등학생인 경우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표 IV-8 참고).

교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중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나를 믿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설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자는 51.3%이다. 학업성적이 좋은 집단의 70.4%가 그렇다고 응답한데 반해, 학업성적이 나쁜 집단에서는 33.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업성적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은 교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 차가 나왔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초등학교 4학년은 74.4%, 6학년은 60.7%가 믿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의 경우 31.8%에 불과하다. 이렇게 초등학생과 중학생간의 현저한 차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조,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 시기에는 아직 선생님의 존재나 권위를 인정하

는 경향을 보이고, 중학생들 중에는 선생님의 존재나 권위 등에 대해 무시하려는 경향이 보다 많기 때문일 수 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7.7%인데,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 및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서의 문항에서처럼 학업성적과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79.6%)가 학업성적이 나쁜 경우(48.9%)보다, 초등학교 4학년(84.6%)보다 중학생(51.7%)이 교사와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교사관계에 관한 관련 변수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며, 초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가정경제수준이 좋은 학생이 나쁜 학생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IV-8> 관련 변수에 따른 또래·교사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또래관계		교사관계	
		평균	T/F값	평균	T/F값
성별	남	17.03	0.29	7.31	4.76*
	여	16.94		7.63	
학년	초등학교 4학년생	17.12	4.48*	8.67	94.04***
	초등학교 6학년생	17.37		7.92	
	중학교 2학년생	16.67		6.46	
학업성적	잘 하는 편	8.50	16.62***	8.28	44.97***
	중 간	8.56		7.52	
	못 하는 편	7.88		6.26	
경제수준	잘 사는 편	8.09	9.37***	17.73	6.36**
	중 간	7.42		16.99	
	못 사는 편	6.86		15.57	
어머니학력	초/중학교	16.87	0.29	7.16	4.32*
	고등학교	17.09		7.35	
	대학교이상	16.98		7.75	

* $p < .05$ ** $p < .01$ *** $p < .001$

5. 비행 억제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4)

비행억제는 도덕적 규범준수 차원의 비행억제가 가장 높고, 준거 집단의 유대상실로 인한 비행억제, 사회적 피해인식으로 인한 비행억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낮거나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비행억제 성향이 높았다.

1) 빈도별 분포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비행억제는 사회적 피해를 인식해서 비행을 억제하는 경우, 부모나 친구, 교사 등 의미있는 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때문에 비행을 억제한다는 경우와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행을 억제한다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3영역의 평균치는 도덕적 규범으로 인한 억제가 4.11점, 준거집단과의 유대 상실을 우려한 억제는 3.79점이고 사회적 피해 인식으로 인한 억제는 3.66점으로 나타나, 비행억제에 대한 도덕적 규범의 중요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영역별 세부 분석에 앞서 각 문항별 평균치와 빈도분포를 고려하여 가장 억제점수가 높거나 그렇다는 응답빈도가 많은 5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은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4.3/81.2%)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실망하시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4.2/80.3%)는 문항,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안한다는 것(4.1/75.0%),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벌을 받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안한다는 것(4.1/74.5%), 커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봐 나쁜 행동을 안 하려고 한다(3.9/69.4%)는 것이다.

각 문항 중 평균치가 낮거나 그렇다는 응답빈도가 적은 5문항은 성적

이 떨어질까봐(3.4/51.9%) 또는 선생님과 멀어지게 될까봐(3.5/52.3%), 학교에 못 다니게 될까봐(3.5/55.0%)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항과 친구가 알게 되면 실망할 것이기 때문에(3.7/59.3%), 학교에서 문제아로 소문날까봐(3.7/61.3%)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항이다.

<표 IV-9> 비행억제 상·하위 각 5문항의 평균 및 백분율

비행억제 상위 5문항	평균/백분율	비행억제 하위 5문항	평균/백분율
자신에게 손해	4.3 / 81.2	성적 하락	3.4 / 51.9
부모 실망	4.2 / 80.3	선생님과 떨어질까봐	3.5 / 52.3
죄짓는 것은 나쁘니까	4.1 / 75.0	학교 못다니게 될까봐	3.5 / 59.3
죄지으면 반드시 처벌	4.1 / 74.5	친구 실망	3.7 / 59.3
사회생활상 문제가 될	3.9 / 69.4	문제아로 소문날까봐	3.7 / 61.3

준거집단과의 유대 상실을 우려한 비행억제 문항 중, 준거집단의 실망감 때문에 비행을 억제한다는 문항간 비교에서 비행억제는 부모의 실망(80.3%), 교사의 실망(62.7%), 친구의 실망(5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우려한 비행억제의 경우는 부모와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것(63.6%), 친구와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것(61.2%), 교사와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것(5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시사받는 바는 도덕적 규범이나 부모와의 유대는 비행억제에 주요 요인이 되며, 준거집단 중 교사나 또래와의 유대는 부모와의 유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비행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신에게 돌아갈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고, 비행억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반응만을 학년별로 비교해 볼 때, 도덕적 규범 준수 또는 당위성 차원의 문항에 대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초등학교 4학년생은 66.8-62.4%인데 반해 중학생은 33.1-33.5%에 불과해 초등학교생의 도덕 준수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기성 세대나 기존의 가치에 대한 반발감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점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학년별 억제성향의 차이는 준거집단과의 유대 상실을 우려한 비행억제나 사회적 피해를 인식한 비행억제 관련 문항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초등학교 4학년은 중학생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30% 정도 억제성향 빈도가 높았다. 그 가운데 사회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비행억제를 한다는 비율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빈도가 적고, 특히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생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학교성적에 따른 비행억제 성향 역시 학년별 비행억제 경향과 유사하여,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비행억제 성향이 높고,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비행억제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비행억제 문항 중 커서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될까봐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47.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학업성적이 나쁜 경우 26.2%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적이 떨어지게 될까봐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37.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데 반해 학업성적이 나쁜 경우 19.9%만이 지지하였다. 결국 학업성적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행동을 자제하는 반면, 학업성적이 낮은 사람은 이미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거나 문제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입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행억제 성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심리학적 변수와 비행억제와의 관계

사회심리학적 변수에 따른 비행억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비행억제는 학년과 학업성적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전반적 경향과 일치하여 초등학교 4학생인 경우, 중학생 보다 비행억제 성향이 높고, 학업성적이 좋은 집단은 학업성적이 나쁜 집단보다 비행억제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보다 규범적이고, 일탈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반면, 중학생 정도 되면, 기존의 지배 가치에 대한 반발과 청소년기의 특성상 충동적이고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일삼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행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볼 때,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은 학업성적이 좋은 집단보다 비행으로 인해 잃을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비행억제의 하위영역 중 준거집단의 유대상실을 우려한 비행억제는 학년과 학업성적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사회적 피해인식으로 인한 비행억제는 학년에 따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성적에 따른 사회적 피해 인식으로 인한 비행억제는 $p=.052$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적 규범에 의한 비행억제는 학년과 학업성적 이외에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비행을 억제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성차에 따른 사회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기존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일 수 있다.

사회심리학적 변수 중 보다 개인적 특성과 부모자녀관계, 또래 및 교사관계 등과 비행억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표 IV-10 참고). 비행억제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변수는 부모의 자식사랑 인지와 가족부양 책임($r=.35$), 애착($r=.34$), 처벌인식($r=.30$)과 교사

와의 신뢰 관계($r=.29$)이다. 즉,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 의미가 중요하고, 나름대로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을 느낄수록, 부모와의 온정적 관계를 유지할수록, 처벌에 대해 강하게 인지할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비행억제성향이 높다.

<표 IV-10> 관련 변수에 따른 비행억제

변 수 \ 비행억제	피해인식		준거집단 유대상실		도덕적 규범		전체 억제	
	평균	T/F값	평균	T/F값	평균	T/F값	평균	T/F값
성별								
남	17.85	-1.80	26.35	-1.04	12.25	-2.43*	56.55	-1.56
여	18.45		26.80		12.67		57.87	
학년								
초등학교4학년생	19.24	14.56 ***	28.14	21.49 ***	13.19	22.02 ***	60.56	23.48 ***
초등학교6학년생	18.72		27.47		12.73		58.91	
중학교 2학년생	17.18		26.55		11.86		57.16	
학업성적								
잘 하는 편	18.36	2.98※	27.49	8.78 ***	12.88	22.96 ***	58.73	9.74 ***
중 간	18.39		26.73		12.66		57.79	
못 하는 편	17.34		24.90		11.30		53.54	
경제수준								
잘 사는 편	17.47	1.72	25.51	2.13	11.89	2.31	54.87	2.45
중 간	18.13		26.53		12.45		57.10	
못 사는 편	18.92		27.59		12.46		59.31	
어머니 학력								
초/중학교	18.87	1.53	27.38	0.36	12.84	2.14	59.10	1.44
고등학교	18.23		26.50		12.32		57.06	
대학교이상	17.93		26.49		12.54		56.97	

* $p<.05$ ** $p<.01$ *** $p<.001$ ※ $p=.052$

하위영역별 비행억제와 관련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체 비행억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나, 사회적 피해인식으로 인한 비행억제는 부양 부담, 처벌인식, 애착 및 교사관계와 낮은 정적관계를 보이며,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낮은 상관을 보인다. 준거집단과의 유대상실을 우려한 비행억제와 도덕적 규범 준수 차원에서의 비행억제는 부모자녀관계 요인과의 정적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심함은 비행억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성은 전체 비행억제나 사회피해인식억제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반해, 나머지 영역에서는 미약하나마 부적 상관을 보인다. 즉, 충동성이 높으면, 비행억제력이 낮다.

<표 IV-11> 비행억제와 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

비행억제 독립변수	피해인식	준거집단	도덕적 규범	전체 억제
충동성	-.05	-.14**	-.14**	-.09*
소심함	.03	.05	.01	.06
법의 공정성	.16**	.19**	.19**	.19**
처벌 인식	.23**	.26**	.39**	.30**
애착	.22**	.37**	.34**	.34**
훈육	.14**	.24**	.24**	.22**
부모사랑인지	.25**	.36**	.35**	.35**
또래관계	.13**	.22**	.16**	.20**
교사관계	.20**	.30**	.30**	.29**

** p < .01

6. 비행억제에 대한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5)

비행억제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처벌의 확실성과 부모자녀간 애착과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학년별로 차이가 나서, 초등학교의 경우, 또래와의 신뢰적 관계는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나, 중학생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행억제에 어떠한 변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비행억제에 대한 다단계 중다회귀분석을 일차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행억제의 하위영역과 학년별로 나누어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였다.

총 비행억제에 대한 위계별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행억제에 미치는 각 변수들은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개인적 변수를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하였고, 2단계는 여기에 부모자녀관계 관련 변수에 대한 평가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3단계는 주요한 준거 집단인 또래관계나 교사관계에 관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총 11개 변수가 비행억제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총 6개의 변수에 대한 stepwise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4개의 변수가 의미있게 나타났으며 비행억제에 대한 설명력은 13.2% 정도이다. 비행억제는 처벌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법에 대해 공정하게 생각하는 경우 억제성향이 높고, 반면,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학년이 낮은 경우 비행억제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부모자녀관계 관련 변수를 포함시켜, 총 9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1단계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변수 중 학업성적이나 학년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대신 부모자녀관계 관련 3개의

변수 중 2개가 통계적으로 유의있고, 개인적인 인성 특성인 소심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5개 변수는 비행억제에 대해 21.0%의 설명력을 보이며,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강하고,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해 자녀가 인지하며, 법의 공정성을 믿고, 처벌의 확실성을 강하게 인지하며, 소심한 사람은 비행억제 성향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충동성은 비행충동이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제시된 바 있으나, 여기서는 충동성은 별 의미가 없게 나타났다. 반면,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 의미가 없었던 소심함은 비행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위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대해 민감하고, 자기 표현을 제대로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이나 불확실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고, 걱정을 많이 하며 마음의 상처도 잘 받는 학생이 비행을 억제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9개의 변수와 더불어 또래나 교사관계를 함께 포함하여 총 11개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나타난 6

<표IV-12> 비행억제에 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표준화된 회귀계수)

독립변수	1단계(β)	2단계(β)	3단계(β)
학년	-.09*		
학업성적	-.08*		
법공정성	.11***	.07*	
처벌	.25***	.20***	.19***
애착		.21***	.19***
부담		.16***	.15***
소심함		.07*	.08*
또래관계			.08*
교사관계			.08*
R ²	.132	.210	.224

* $p < .05$ ** $p < .01$ *** $p < .001$

개 변수의 비행억제에 대한 설명력은 미약하나마 2단계에 비해 1.4% 증가한 22.4%이다. 2단계의 분석결과와 다른 점은 새로 추가된 또래관계와 교사관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나타난 반면, 법에 대한 공정성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최종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죄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믿고, 부모자녀간 심리적 애착이 형성되어 있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가 부모의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각하면, 비행억제성향이 증가한다. 또한, 매사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남이 어떻게 생각할 지 신경쓰는 등 소심한 성격이거나 또래관계에 대한 적응을 잘 하고, 친구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경우, 교사와의 관계도 온정적이며, 신뢰감이 있는 경우 역시 비행억제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억제의 하위영역별로 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준거집단의 유대상실을 우려한 비행억제는 앞서 3단계의 결과와 일치하고, 22.3%의 설명력을 보이나, 나머지 2 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소 다르다. 회귀분석에 포함시킨 변수의 총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영역은 도덕적 규범에 의한 비행억제이다. 도덕적 규범 차원의 비행억제는 처벌에 대한 인식에 의해 가장 예측력이 높으며, 애착, 부담, 교사관계, 충동성등의 변수도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에 의한 비행억제 설명력은 26.2%이다. 특히, 충동성은 앞서의 분석에서 의미있는 변수가 아니었으나, 여기서는 의미있게 나타났다. 한편, 피해 인식에 의한 비행억제는 관련 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낮아 12.3%이다. 이러한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 6개 변수로, 처벌에 대한 인지, 부모자녀간 애착, 부모사랑에 대한 인지와 소심함, 학년, 또래관계 변수이다.

<표 IV-13> 비행억제 하위영역에 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표준화된 회귀계수)

독립변수	피해인식(β)	유대상실(β)	도덕적규범(β)
학년	-.08*		
애착	.10*	.23***	.14***
부담	.12***	.14***	.15***
차별		.14***	.29***
소심함	.09*	.13***	
또래관계	.07*	.21***	.11*
교사관계		.22***	
충동성			-.08*
R ²	.123	.223	.262

* $p < .05$ *** $p < .001$

학년은 매우 유의미한 변수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표 IV-14 참조).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집단의 경우,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중학생 집단의 경우 보다 적고, 설명력도 떨어진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전체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 또래관계, 경제수준이며, 세 변수의 비행억제 설명력은 15.3%이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는 부모의 훈육과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만이 비행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9.2%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중학생의 경우는 총 10개 독립변수 중 비행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6개이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1.8%로, 총 비행억제보다, 초등학생 집단의 경우보다 현저히 설명력이 높다. 중학생의 비행억제성향은 부모자녀간에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일관성 있는 훈육을 하는 경우, 교사와 신뢰

관계를 맺고, 처벌에 대한 확실성을 인지하며, 소심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Ⅳ-14> 학년별 비행억제에 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초등4년 (β)	초등6년 (β)	중학2년 (β)
애착			.31***
부모의 자식사랑 인지	.22***	.16***	.14*
훈육		.20***	.17***
처벌의 확실성			.29*
소심함			.13**
교사관계			.15**
또래관계	.21***		
경제수준	.14***		
R ²	.153	.092	.318

* $p < .05$

** $p < .01$

*** $p < .001$

즉,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긍정적인 친밀한 관계 이외에도 부모의 훈육에 대한 불만이 적을수록, 처벌의 확실성에 대해 강하게 지각하며, 소심한 성격이며, 교사와 신뢰감이 형성되며 온정적 관계의 유지는 비행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다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이 개체와 환경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된다는 시각에서, 궁극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비행억제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비행 청소년이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924명을 대상으로,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부모자녀관계 요인, 또래 및 교사관계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동성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의 1/3 정도는 즉각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의지나 욕구와 다른 상황에서 인내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남녀 성차에 따라 달라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아무런 준비나 계획없이 행동하는 등 보다 충동적이며,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2. 소심함

조사대상자의 1/3 정도는 자기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1/2 정도는 주위의 시선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소심한데, 이는 여학생에 대한 사회화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학업성적이 낮고, 가정경제사정이 어렵다고 지각한 경우에도 소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환경에 대한 열등감과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자신감이 결여되어 위축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또래관계에 적응을 못하면 더 소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의 공정성 및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약 40%는 법에 대해 불공평하고,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조사대상자의 약 80%는 처벌의 확실성 등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권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법에 대해 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부모자녀간의 온정적 관계, 자녀훈육의 일관성과 부모의 자녀사랑에 대해 수용적으로 지각하는 집단은 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였다.

4. 부모자녀관계

초·중학생은 전반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년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초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부모자녀관계를 온정적 관계로 지각하고,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가족부양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반면,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부모의 훈육에 대한 불만율이 높았다.

5. 또래 및 교사관계

조사대상자의 10명 중 5-6명은 주위 사람이 비난해도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고 했으며, 주위 사람이 비난해도 믿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교사와의 관계를 더 온정적 관계로 지각했다.

6. 비행억제의 전반적 경향

비행억제 성향이 가장 높은 것은 비행억제 중 도덕적 규범준수 차원의 비행억제이며, 준거집단의 유대상실을 우려한 비행억제, 사회적 피해를 우려한 비행억제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낮거나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비행억제 성향이 높았다. 중학생은 발달특성상 기존의 지배하는 가치나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심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학업성적이 좋은 집단은 비행을 통해 그간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비행억제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적인 비행억제는 처벌의 확실성, 부모자녀간 애착, 훈육,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 교사와의 온정적 관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비행억제에 대한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 가운데, 어떤 변수가 더 설명력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되, 각 변수별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 비행억제와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둘째 단계에서는 부모자녀관계 요인까지 포함했고, 셋째 단계에서는 또래 및 교사관계 요인까지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최종분석 결과에 의하면, 1, 2단계 분석에서 비행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범의 공정성과 학년, 학업성적은 제외되었고, 단순 상관분석에서 유의있게 나타나지 않았던 소심함은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와 교사관계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비행억제에 설명력이 높은 것은 처벌의 확실성과 부모자녀간 애착이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인지로 밝혀졌다. 학년별로 나누어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와 달리 비행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즉, 부모와 온정적인 관계를 갖고, 훈육을 바르게 하며,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며, 소심한 성격이거나 처벌의 확실성에 대해 인지할수록 비행억제력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청소년 비행억제를 위해 시사받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바로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강조해 온 점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모자녀간의 심리적인 애착관계와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부모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며, 아울러 가족 부양의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 비행억제성향이 높다. 가족원의 일원으로서 내면화하고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가족생활영위를 위한 부모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비행억제에 도움이 된다. 부모의 애착과 부모입장에 대한 이해라는 두 변수는 부모자녀간의 유대를 의미하며, 결국 부모자녀간의 유대감이 높을수록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유대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모자녀관계 요인 중 부모의 훈육은 특히, 중학생 자녀의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바, 그릇된 사고와 행동을 교정하며, 바른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훈육 원칙이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하고, 원칙에 대한 부모자녀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합의없이, 일관성 없이 훈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녀의 반발심과 불만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 비행억제를 위해서는 자아통제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들은 비행을 하게 될 때 장차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을 인식하여 비행을 억제한다거나 부모나 또래, 교사 등 자신에게 의미있는 중요한 집단과의 유대상실을 우려하여 비행을 억제한다는 경우보다 도덕적 규범 준수 차원에서 비행을 억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바로 충동성은 비행억제의 다른 하위영역보다도 도덕적 규범의 준수 차원의 비행억제에만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고 지연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규범을 강하게 인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행행위자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나쁜 것인지 몰라서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

에 대한 합리화를 하면서 비행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행 상황에 처할 경우에 특정인은 비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비행에 연루되지 않고,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 중에는 처벌에 대한 확실성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적고, 청소년기에 이르기 전에 도덕적 규범 준수 의식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에 부도덕하고 부패한 각종 정치,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전반적으로 사회 윤리의식이 희박해져가는 현실적 상황과 조건이 존재하는 한, 도덕적 당위성과 긍정적 가치를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청소년의 건전한 법의식 형성과 도덕성의 내면화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 Grasmick, H. G., R. J. Bursik and B. J. Arnekklev(1993). Reduction in Drunk as a Response to Increased Threat of Shame, Embarrassment, and Regal Sanction, **Criminology** 31, 41-67.
- Jensen, G.F., J.P. Gibbs, and M. Erickson(1978). Perceived Risks of Punishment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Social Forces** 57 : 57-78.
- Krohn, M. D. & J. L. Massey(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Social Bond. **Sociological Quarterly** 21: 529-543.
- Moffitt, T. E. (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Patterson, G. R., DeBarshe, B. D.,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권윤아(1997).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가출유형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김선애(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7(1)
- 김준호·김은경(1996).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1996).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권력작용의 효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나경란(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충동에 미치는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문은영(1993).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수홍(1995).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과 결과. 형사정책연구 6(1)
- 민수홍(1998).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정민(1998). 비행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창남(1995). 법 처벌의 인지된 억제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운영(1998). 청소년 비행유형과 NEO-PI-R의 성격특성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태호·김정규(1991)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성격유형. 형사정책연구 2(4)
- 원호택·이민규(1990). 범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의 기본방향. 형사정책연구 1
- 이동원(1997). 청소년 비행의 통제요인과 유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1995). 충동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중(199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과 통제소재 및 비행충동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최인섭(1994). 사회규범의 준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1995).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1995). 청소년비행론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 형사정책연구 6(4)
- 이성식(1997). 범죄상황적 시각의 이론들을 통한 자아통제이론의 수정. 형사정책연구 8(2)

- 이영남(199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도덕판단능력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관수(1989). 도덕적 합리성과 열정성이 행동선택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정혜승(199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비행기회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1997).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8(2)
- 진복선(1997). 사회관계적 맥락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 최인섭·이성식(1996).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재경(1995). 청소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동 및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훈(1994). 청소년들의 도덕적 행동의 억제 현상과 그 이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성숙(1998). 학교내 집단괴로힘에 대한 일 연구-실태 및 피해-가해의 중첩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f Deterrence Effects on Adolescent Delinquency

This study examines the individual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to analyze the deterrence effects on youth delinquent behaviors. The data for this study consists of 2 data sets : one is from elementary school students($n=511$) and the other is from middle school students($n= 408$).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Even though adolescents face the delinquent situations, they are less likely to involve into the delinquency if they believe that punishment damages their lives(81.2%), and disappoint their parents(80.3%) as well as that delinquent behaviors would be punished some time(74.5%).

2) For elementary students, morality, grade, consistent disciplines of parents, and the perceptions of parents' love are good deterrence factors.

3) Middle school students show more complicated deterrence effects on delinquent behaviors. The most significant deterrence factors are the attachment to their parents and the certainty of punishment. Moreover, consistent disciplines of parents and trust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can reduce the tendency of delinquent behaviors.

부 록

- 청소년의 의식조사 - 설문지

<부록 1>

청소년의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개발원에서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기 위해 여러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옳고 그릇된 응답은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질문을 끝까지 읽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8년 6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우 137-715)

고 성 혜 (전화 : 2188-8823)

◎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의 경우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0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하고 싶은 말은 도저히 못참는다.	5	4	3	2	1
2.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5	4	3	2	1
3.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냐 별 생각없이 말해버리곤 한다.	5	4	3	2	1
4. 기분 내키는대로 순간적으로 행동을 해버린다.	5	4	3	2	1
5. 나는 계획이나 준비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5	4	3	2	1
6. 때로는 생각없이 행동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5	4	3	2	1
7. 행동을 한 후,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	5	4	3	2	1
8. 나는 모든 일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5	4	3	2	1
9. 나는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죽어도 못한다.	5	4	3	2	1
10.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인내심이 부족하다.	5	4	3	2	1
11.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이나 불확실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5	4	3	2	1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다.	5	4	3	2	1
13.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5	4	3	2	1
14. 행동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매우 신경쓰인다.	5	4	3	2	1
15.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한다.	5	4	3	2	1

◎ 다음은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각 질문의 내용이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더라도 관계가 없으니, 자신의 경우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응답을 하나 선택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0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부모님은 내게 좋은 친구역할을 해 주신다.	5	4	3	2	1
2.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5	4	3	2	1
3. 나는 부모님과 매우 친하다.	5	4	3	2	1
4. 나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5	4	3	2	1
5. 나는 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한다.	5	4	3	2	1
6. 부모님은 내 생각과 의견에 귀기우려 주신다.	5	4	3	2	1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5	4	3	2	1
8. 부모님은 내가 잘한 것과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말씀하신다.	5	4	3	2	1
9. 내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5	4	3	2	1
10. 부모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	5	4	3	2	1
11.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꾸짖을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5	4	3	2	1
12. 부모님은 나를 기르는 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로 여기 신다.	5	4	3	2	1
13. 부모님은 나를 위해 부모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신다.	5	4	3	2	1
14. 부모님은 내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신다.	5	4	3	2	1
15.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계시다.	5	4	3	2	1
16. 나는 앞으로 우리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5	4	3	2	1

◎ 다음은 평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하나 선택하여 해당 번호에 0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다.	5	4	3	2	1
2. 나는 친한 친구가 많다.	5	4	3	2	1
3.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많다.	5	4	3	2	1
4. 내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	5	4	3	2	1
5. 내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나를 믿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5	4	3	2	1
6.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다.	5	4	3	2	1
7.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5	4	3	2	1
8. 학교에서 나는 외톨이다.	5	4	3	2	1
9. 옳지 않고 부당한 법이 있는 것 같다.	5	4	3	2	1
10. 경찰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등하게 일을 처리한다.	5	4	3	2	1
11. 법은 모든 사람들 앞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	5	4	3	2	1
12. 법대로 살아가다간 항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법을 어길 수 있다.	5	4	3	2	1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경찰에 잡히게 된다.	5	4	3	2	1
14.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5	4	3	2	1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볼 때 공부한 것이 생각 나지 않거나 공부한 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남의 답안지를 보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한번 아이들을 골려주고 때려주고 싶기도 하며, 슈퍼나 문방구에서 평소 내가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슬쩍 갖고 나오고 싶기도 합니다. 골목길에 주차해 있는 자동차를 발로 차 분다거나 길가에 놓여 있는 오토바이를 타 보고 싶은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른 몰래 여러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곳을 가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자유롭게 해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의 경우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O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누군가에게 돌키게 될까봐 나는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2.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부모가 알게 되면 실망하시기 때문에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3. 부모와 멀어질까봐 나는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4. 친구와 멀어질까봐 나는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5.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친구가 알게 되면 실망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6.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알게 되면 실망하시기 때문에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7. 나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소문날까봐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8. 성적이 떨어지게 될까봐 나는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9. 학교를 못다니게 될까봐 나는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10. 커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봐 나는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12.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나는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13. 나는 나쁜 행동을 하다가 경찰이나 선생님한테 잡히게 될까봐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14. 선생님과 멀어지게 될까봐 나는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15. 결국 내 손해이기 때문에 나는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16.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니까 나쁜 행동을 안하려고 한다.	5	4	3	2	1

☐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직접
써 주십시오.

1. 응답자의 성별은? (1) 남 () (2) 여 ()
2. 응답자의 연령은? ()살
3. 공부를 잘하는 편입니까? ()
 - 1) 잘한다
 - 2) 잘하는 편이다
 - 3) 중간 정도이다
 - 4) 못하는 편이다
 - 5) 못한다
4. 우리 집의 경제사정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 1) 못 사는 편이다
 - 2) 보통 정도이다
 - 3) 잘 사는 편이다

5.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아버지 () 어머니 ()

- | | |
|--------------|--------------|
| 1) 초등학교 졸업이하 | 2) 중학교 졸업 |
| 3) 고등학교 졸업 | 4) 대학교 졸업 이상 |

6. 부모님의 직업이 있는 경우, 자세히 써 주기 바랍니다.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

7. 부모님의 생존여부는? ()

- | | |
|----------------|-------------|
| 1) 친부모가 다 살아계심 | 2) 홀어머니 |
| 3) 홀아버지 | 4) 기타 _____ |

8. 나를 포함하여 형제는 모두 몇 명입니까? ()

- | | | | |
|------------|-------|-------|----------|
| 1) 1명(외동이) | 2) 2명 | 3) 3명 | 4) 4명 이상 |
|------------|-------|-------|----------|

<< 수고했습니다 >>

